

케이피에프 중국법인,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 ▶ 세계 3대 베어링 제조업체인 NTN-SNR로부터 3세대 베어링 부품 신규 양산업체로 선정
- ▶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경량화 추세로 3세대 베어링 수요 폭발적 증가

<2018-08-16> 케이피에프 중국법인, NTN-SNR로 부터 3세대 베어링부품 신규 양산업체로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전문 케이피에프(024880, 대표이사 송무현·김형노)가 세계 3대 베어링 제조업체인 NTN-SNR로부터 3세대 베어링 부품 신규 양산업체로 선정되어 중국법인 미래성장의 신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케이피에프는 작년에 NTN-SNR로부터 1세대 베어링 단조부품 부문 최우수공급자로 선정된 데 이어 중국법인이 3세대 베어링부품 신규양산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케이피에프 관계자는 "이번 NTN-SNR의 신규 양산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샘플 공급을 시작하고, 2020년부터는 연간 7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게 된다."며, "또한, 현재 추가공급도 협의하고 있어 연간 100억 원 규모 이상의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피에프가 이번에 신규 양산업체로 선정된 3세대 베어링부품은 기존의 독립형의 1세대 베어링에서 경량화, 모듈화된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3세대 베어링의 핵심기술인 고주파열처리 공정이 포함되어 향후 고부가치 자동차부품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케이피에프 민양규 실장은 "이번 신규 공급업체 선정으로 케이피에프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현재 중국법인은 중국 내수시장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럽 3세대 베어링 부품시장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확장은 물론 유럽시장까지 공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피에프 중국법인은 2017년 기준 매출액 399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이익 30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NTN-SNR의 3세대 베어링 부품공급으로 연간 매출액 500억 원 규모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